

기고

한민 산림조합중앙회 광주전남본부장



국립난대수목원은 완도수목원이 최적지

수목원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 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산업적 연구 등을 수행하는 시설이다.

산림청은 제4차 수목원 진흥 기본계획(2019~2023)에 따라 남부권에 국립난대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해 대상지를 찾고 있다.

여러 지역에서 유치하기 위해 밟고 나섰으나 경남 거제와 함께 완도수목원이 최종 대상으로 선정되어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서면과 현장 심사 등을 통해 8월 중 대상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 타당성 분석에 의하면 국립난대수목원 유치로 인해 연간 방문객 150만 명, 고용 유발 2만 8천 명 등 2조원

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최대 2천억 원 규모로 지방비 부담 없이 전액 국비를 투자하여 산림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인 만큼 지역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대형 사업이기에 전남도에 서도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한 기대가 높고 있다.

완도수목원은 붉가시나무, 구실잣밤나무, 황칠나무 등 770여종이 자생하는 국내 최대의 난대림 자생지이자 산림청에 등록된 유일한 난

대수목원이다.

1991년에 개원하여 30여년 간 전남도에서 조성·관리해 오면서 아열대온실과 30여개의 전문소원, 계류보전 및 임도 전방대 등 기본적인 전시·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난대림이 생육할 수 있는 기후 조건(연평균기온 14°C 이상, 1월 평균기온 0°C 이상, 강수량 1,300~1,500mm)을 가지고 있는 국립난대수목원의 최적지이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난대림에 대한 체계적인 유전자 정보와 분류, 동정, 천연물 추출 및 산업화 등을 위해 다양한 연구 활동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 여건상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서식지 내·외 종 보전과 연구를 통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완도수목원에 국립난대수목원을 유치해야 한다.

한편, 지난 2008년에 산림청은 완도수목원을 세계적인 난대수목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전라남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특히 산림청은 완도수목원을 식물자원 연구기반 뿐만 아니라 섬과 바다, 식물과 숲 등 자연경관이 지역관광자원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투자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계획한 바 있다.

세계적인 관광 명소 싱가포르 가든스바이더베이는 도시정원을 계획하여 전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있고, 엄청난 관광수입도 올리고 있다.

완도수목원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싱가포르 가든스바이더베이에 비해 불가할 만큼 무한한 자원(자원, 관광, 문화, 학술 등)의 원천이라 할 것이고 국가적인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전 세계적인 명소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기 위해 'Eco 푸른 숲속의 전담' 만들기에 한창인 가운데, 난대림이라는 천혜의 자원을 바탕으로 산림생명자원의 수집·보전 기반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연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국립난대수목원을 반드시 완도수목원 지역으로 유치되기를 기원한다.

社說

직장내 '폭언' 사라져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난 달 동안 하루 평균 16.5건의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폭언으로 인한 피해 호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고용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은 모두 379건이었다. 근무일(주5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16.5건에 달했다.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사례별로 보면 폭언에 관한 진정이 152건(40.1%)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 업무 지시 및 부당 인사(28.2%), 협박 및 따돌림(11.9%)이 뒤를 이었다. 업무 미부여(3.4%), 차별(2.4%), 강요(2.4%), 폭행(1.3%), 감시(0.5%) 등의 사례도 접수됐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제기한 진정이 189건(42.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0인 이상 사업장(26.9%), 50~99인 사업장(17.7%), 100~299인 사업장(13.4%) 순이었다. 체계적 인사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

서 직장 내 괴롭힘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사업장에서 제기된 진정이 85건(22.4%)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서비스업(14.0%),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1.6%)이 뒤를 이었다. 사업서비스업은 건물 관리업, 청소업, 경비·경호 서비스업 등으로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직종인데,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4.8%)을 고려하면 진정이 많은 편이다. 이 밖에 지역별로 보면 서울(119건)과 경기(96건)가 전체의 56.7%를 차지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지는 대도시 지역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빨리 확산하고 있긴 하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해 현장 이해를 돕고 인식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향후 직장 내 괴롭힘 판단사례, 시정조치 내용 등을 소개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민간상담센터와 연계한 전문상담 기능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E-mail: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

폭염 뉴스가 나오면 항상 여름 피서객들의 증가와 전국 고속도로 체중 뉴스가 등장한다. 무더운 날씨를 피해 바다, 계곡, 산 등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 피서객들로 북적거린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물놀이 사고를 뉴스, 신문을 통해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된다. 소방일을 하면서 이맘때쯤 수난사고 출동 지령을 들으면 항상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신나는 마음으로 출발했던 여행길이 눈물길 이 된다고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특히 계곡, 저수지 등의 수난사고 현장은 산길을 타고 올라가거나 피서객들의 불법 주차 차량으로 현장 도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요구조자가 물속에서 오랫동안 버티지 못하거나 물에 휩쓸려 갔을 때엔 생명을 잃을 확률이 높다.

사고가 나면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

이 높은 물놀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위험지역' 및 '입수금지구역' 등의 안전규정만 정확히 알고 잘 실천하면 사고는 많이 줄어든다. 계곡 및 저수지 등에는 보이지 않은 울퉁퉁 곳 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생각으로 안전장치 없이 수영을 즐긴다.

또한, 여행의 즐거움에 맥주, 소주 등 한두 잔 즐기다가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술로 인해 체력이 많이 저하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사고의 위험성을 높인다.

사고는 예상치 못했을 때 발생한다. 물 근처에 갔을 때에는 꼭 기본적인 준비운동과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장시간 수영보다는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수영을 즐기거나, 식사 30분 후 물에 들어가야 한다.

조세현 / 순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여름철 눈병 관리 주의 생활화 해야

무더운 여름철에 야외 물놀이 등 바닷가나 강에서 피서를 즐기기에 더 없이 좋은 계절이다.

다음은 여름철 물놀이 중 눈부위에 노출되어 전염병이 우려되므로 다음과 같은 요령을 숙지하여 눈병 예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우리의 신체 부위 중 사지를 제외하고서 가장 노출이 많은 부분은 눈(안구)이다.

눈은 우리에게 사물을 보여주고 인지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눈에 이물질 등 손상을 입었을 때 행할 수 있는 처치 요령을 알아보자. 눈에 이물질이 있을 때는 충혈 및 과도한 눈물이 분비되며 심하면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

식염수를 이용해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세척해주며 면봉을 식염수를 적셔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제거시 무리한 행위는 결과, 각막표면에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시행하지 말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눈부위에 둔상(둔탁한 물체에 부딪힌)을 입었을 때는 통증을 동반하며 충혈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시력감소 및 출혈이 일어날 수 있다. 둔상에 노출된 눈으로 양쪽 눈을 가려 안구 보호장비를 착용시키며 눈의 압력을 최소화 하며 반좌위(편안 앉은 자세)로 이송해야 한다.

얼음찜질시 손상부위의 환관이 축소해 더욱 위험해질 수 있으며 봉대도 감이 지압하지 않아야 한다. 눈부위에 열상(베인상)을 입었을 때는 압박지혈을 하면 안되며 이물질 제거시는 각막을 만지지 말아야 한다. 압력에 의해 손상부위가 더 커질 수 있다.

눈부위 화상시는 손상받은 쪽으로 높혀 20분정도 화상 부위를 흐르는 물에 세척하며 눈을 감은 채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눈꺼풀을 들지 말고 세척 해주어야 한다.

백종희 / 무안소방서 지휘팀장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평알고음 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 ▲수도 고장신고 121
- ▲전기고장 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광안)	<b>대표이사·회장·발행인</b> 김 경 호
<b>호남신문</b>	<b>편집인·편집국장</b> 강 서 원
대표전화 (062) 229-6000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남문로 753번길 7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광고국 (062) 224-5800	<b>인터넷 호남신문</b> www.i-honam.com
팩스 (062) 222-5547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채 (주)남도브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를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